

추석 가정예배 순서

목 도 시편 100:4-5 인 도 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 송 288장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 이

기 도 말 은 이

성 경 봉 독 딤페전 6:17-19 다 같 이

말 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인 도 자

찬 송 430장 - 주와 같이 길가는 것.....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디모데전서 6:17-19

17.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추석을 맞아 오늘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많은 재물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지만 그 안에 위험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다 보면 권력과 명예 등 자기를 높이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소유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더 많은 부를 쫓아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재물은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불확실한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둘째, 이웃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8절)

본문 18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워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대가 없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눠주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누가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는 것은 공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는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웃들을 예수님의 사랑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9절)

재물만 추구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과 반대로 선한 일을 베푸는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영원한 저축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생명의 원천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통일 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

보통으로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2. 온전히 주께 맡긴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3. 주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이세상에 서 내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통일 456)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430

조금 빠르게

1.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2. 어린아이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3.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4. 옛 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의 길로 가겠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들려올라갈 때 까지 주와 같이 건넌

후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秋
夕

2022년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주 안에서 따뜻하고
 온정이 가득한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CHUNG IL CHURCH

충일교회